

제 114 회

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

(문제지)

※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
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|----|-----|------|--|---|--|---|--|---|--|--|
| 급수 | 사범급 | 유형 | A형 | 수험번호 | | - | | - | | - | | |
| 문항수 | 200 | 객 | 50 | 성명 | | | | | | | | |
| | | 주 | 150 | | | | | | | | | |
| 시험시간 | 120분 | | | | | | | | | | | |

수험생 유의 사항

-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.
- 답안지에 문제유형(A, B)를 <예시>와 같이 표기하십시오.
- 답안지에 성명, 수험번호,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.
-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주·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수정방법:
 -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.
 -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,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.
-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.
-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,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.
-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(객관식과 주관식 구분)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.
-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,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.
-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.
-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.

<예시>

| | |
|------|---|
| 문제유형 | |
| A형 | ● |
| B형 | ○ |

■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.

공인민간자격관리 · 운영기관


社團 漢字教育振興會

韓國漢字實力評價院

제114회 한자실력급수 [사범급] 문제지

객관식 (1~50번)

※ []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?

1. [匐] ① 鮑 ② 雹 ③ 範 ④ 僕
2. [涸] ① 鑊 ② 鶴 ③ 霍 ④ 臯
3. [頤] ① 袖 ② 釉 ③ 勸 ④ 惆
4. [閤] ① 權 ② 苾 ③ 棧 ④ 蹉
5. [礪] ① 覈 ② 岵 ③ 栲 ④ 攬

※ []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?

6. [敷] ① 瘍 ② 痒 ③ 殤 ④ 禳
7. [梳] ① 髻 ② 瘡 ③ 銷 ④ 招
8. [嵌] ① 橄 ② 紺 ③ 龕 ④ 檻
9. [邀] ① 擾 ② 蟻 ③ 廖 ④ 拗

※ []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?

10. [賜] ① 賽 ② 賚 ③ 賸 ④ 貶
11. [儻] ① 儉 ② 俑 ③ 佃 ④ 倜
12. [繆] ① 絳 ② 絳 ③ 緬 ④ 綢
13. [曩] ① 斛 ② 疇 ③ 拱 ④ 刮

※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?

14. ① 睨 ② 靚 ③ 規 ④ 視
15. ① 寞 ② 寬 ③ 寨 ④ 牢

※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?

16. ① 煦嘘 : 훈허 ② 慟絕 : 통절
③ 顧眄 : 고면 ④ 倏忽 : 속흘
17. ① 闔眼 : 합안 ② 喘促 : 천작
③ 驀進 : 맥진 ④ 難澁 : 난삽
18. ① 沆瀣 : 향해 ② 昂騰 : 양등
③ 嗤侮 : 치모 ④ 翹果 : 지과
19. ① 富贍 : 부담 ② 穢土 : 예토
③ 瀟灑 : 소쇄 ④ 螭魅 : 이매
20. ① 茯苓 : 복령 ② 蚊蠅 : 문승
③ 贅言 : 체언 ④ 蛇蝎 : 사갈

※ []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?

21. 그 학생은 [층계참] 구석으로 피하며 길을 비켜 주었다.
① 層繼站 ② 層階塹 ③ 層階站 ④ 層繼塹
22. 멀리 보이는 고향 언덕의 [능선]은 연보랏빛 진달래꽃으로 뒤덮여 있었다.
① 稜線 ② 凌旋 ③ 稜旋 ④ 凌線
23. 주전자 뚜껑에는 수증기가 맺혀 [증류수]가 한 줌 정도 고여 있었다.
① 甌溜水 ② 蒸溜水 ③ 蒸溜水 ④ 甌溜水
24. 남부 지방의 장마가 이틀간 [소강]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.
① 少剛 ② 小康 ③ 少康 ④ 小剛
25. 그는 속세를 벗어나 [유수]한 협곡 사이에 자리를 잡고 나물과 약초를 캐며 살아갔다.
① 幽邃 ② 濡邃 ③ 踰邃 ④ 裕邃
26. 삼단 논법은 [연역법]의 대표적인 형식이다.
① 聯譯法 ② 演譯法 ③ 聯繹法 ④ 演繹法
27.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이 [성황당] 앞에서 간절하게 치성을 올리고 있다.
① 城隍堂 ② 聖隍堂 ③ 城惶堂 ④ 聖惶堂

※ []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?

28. 나인 박 씨는 임금의 []이었지만 품성이 매우 방자하였다.
① 擴散 ② 瀝靑 ③ 荏苒 ④ 嬖寵
29. 일반적으로 액체를 가열할 때의 [] 정도는 고체보다 크고 기체보다 작다.
① 淒涼 ② 捌格 ③ 膨脹 ④ 很戾
30. 그는 혼례 의식의 순서를 적은 []을/를 두 손으로 받들어 펼쳐 들고 예를 진행했다.
① 裾礁 ② 菟絲 ③ 笏記 ④ 石榴
31. 범인들은 범행이 [] 나자 도주해 버렸다.
① 斑點 ② 綻露 ③ 耳鳴 ④ 膠漆
32.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선박을 []했다가 본국으로 송환했다.
① 梵偈 ② 耘鋤 ③ 食糜 ④ 拿捕
33. 두 조직은 권력 []을 둘러싼 암투극을 벌이고 있다.
① 篡奪 ② 睚臑 ③ 泮宮 ④ 敷衍

34. 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[] 없이 들어 주기 바란다.

- ① 蕙菜 ② 捻挫 ③ 濾過 ④ 輻輳

※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?

35. 나라에서 丁男에게 구실 대신 시키던 노동.

- ① 胎葉 ② 窪地 ③ 跌宕 ④ 徭戍

36. 남의 마음을 끌어 자기편으로 만듦.

- ① 毛襪 ② 瑣屑 ③ 延攬 ④ 輒輳

37.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킴.

- ① 戡亂 ② 驕慢 ③ 淮尉 ④ 狹窄

38.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줄임.

- ① 慙悔 ② 豪傑 ③ 俵災 ④ 瀕死

39. 기뻐서 손뼉을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춤.

- ① 凋落 ② 拊踊 ③ 親鞠 ④ 馳驟

40. 사물의 정수.

- ① 霑潤 ② 翡翠 ③ 菁華 ④ 銜能

41. 글이나 글씨 또는 기운 따위가 웅장하고 막힘이 없음.

- ① 渺然 ② 雄渾 ③ 褒彰 ④ 剔抉

※ []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?

42. [摩頂放踵]

- 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.
 ② 분쟁이나 사건 따위를 어물어물 덮어 버림.
 ③ 이해나 의견이 서로 다른 집단이 충돌함.
 ④ 온몸을 바쳐서 남을 위하여 희생함을 이르는 말.

43. [爰居爰處]

- ①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.
 ② 가는 곳이나 간 곳이 분명하지 않음.
 ③ 여기저기 옮겨 삶.
 ④ 헤어졌다가 만나고 모였다가 헤어짐.

44. [道不拾遺]

- ① 형벌이 준엄하여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아니하거나 민심이 순후함.
 ②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게 함.
 ③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함.
 ④ 조상의 체질이나 성질 등이 한 대나 여러 대 뒤의 자손에게서 다시 나타나는 현상.

45. [駟不及舌]

- ①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정도의 강한 힘.
 ② 이미 지나간 세월을 부질없이 붙잡으려 함.
 ③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므로 말을 조심하여야 함.
 ④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.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①箴 / 程頤

| | |
|---------|--------|
| 人心之動 | 因言以宣 |
| 發禁躁妄 | 內斯靜專 |
| 矧是樞機 | 興戎出好 |
| 吉凶榮辱 | 惟其所召 |
| 傷易則(㉠) | 傷煩則(㉡) |
| 己肆物忤 | 出悖來違 |
| 非法不(㉢)道 | 欽哉訓辭 |

(나) 睢鳩

| | |
|-------|---------|
| ①關關睢鳩 | 在河之洲 |
| 窈窕淑女 | ⑥君子好逑 |
| ③參差荇菜 | 左右流之 |
| 窈窕淑女 | 寤寐求之 |
| 求之不得 | 寤寐思(㉣)服 |
| ④悠哉悠哉 | 輾轉反側 |

46. (가)의 제목으로 ①에 알맞은 것은?

- ① 視 ② 動 ③ 聽 ④ 言

47. ㉠과 ㉡에 들어갈 漢字로 짝지어진 것은?

- ① 虛-離 ② 誕-離 ③ 誕-支 ④ 虛-支

48. 문맥상 밑줄 친 ㉢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규칙 ② 이끌다 ③ 도리 ④ 말하다

49. 밑줄 친 ㉠~㉣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관문 근처의 물수리 새
 ② ㉡: 군자의 좋은 짝이다
 ③ ㉢: 들쭉날쭉한 마음 나물
 ④ ㉣: 아득하고 아득하다

50. 문맥상 밑줄 친 ㉣의 뜻은?

- ① 익히다 ② 따르다
 ③ 다스리다 ④ 생각하다

주관식 I (주1~주100번)

■ [주관식 I]의 답은 [OCR답안지]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.

- 주1. 堰 ()
- 주2. 淳 ()
- 주3. 蒔 ()
- 주4. 臀 ()
- 주5. 寘 ()
- 주6. 庖 ()
- 주7. 炒 ()
- 주8. 翩 ()
- 주9. 挹 ()
- 주10. 蹙 ()
- 주11. 褪 ()
- 주12. 躑 ()
- 주13. 瘕 ()
- 주14. 躡 ()
- 주15. 幙 ()
- 주16. 滌 ()
- 주17. 堞 ()
- 주18. 媼 ()
- 주19. 砧 ()
- 주20. 赧 ()
- 주21. 拖 ()
- 주22. 眇 ()

※ 한자의 부수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23. 舒 ()
- 주24. 轡 ()
- 주25. 肴 ()
- 주26. 尙 ()

※ 훈과 음에 맞는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27. 괴팍할 팍 ()
- 주28. 아득할 물 ()
- 주29. 풀떨기로날 분 ()
- 주30. 나무무늬 운 ()
- 주31. 고치컬 조 ()

- 주32. 꽃술 예 ()
- 주33. 경계할 천 ()
- 주34. 멋대로 천 ()
- 주35. 함 독 ()
- 주36. 두려워할 힐 ()

※ ○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쓰시오.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| <보기> | 淹 貂 筐 詡 蕭 恤 洽 鉢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
- 주37. ○索 ○颯 ○森 ()
- 주38. 續○ ○尾 扇○ ()
- 주39. 乳○ ○盂 衣○ ()
- 주40. ○泊 ○滯 ○博 ()

※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.

- 주41. 葫蒜 ()
- 주42. 鐫琢 ()
- 주43. 豕喙 ()
- 주44. 鷲瓦 ()
- 주45. 苧麻 ()
- 주46. 闖肆 ()
- 주47. 賡歌 ()
- 주48. 舛訛 ()
- 주49. 鏗鎚 ()
- 주50. 緊紮 ()
- 주51. 脯醢 ()
- 주52. 翳屬 ()
- 주53. 砦堡 ()
- 주54. 鰭鬣 ()
- 주55. 簞簞 ()
- 주56. 耒耜 ()

※ []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.

- 주57. 그는 이번에도 신문사가 주관하는 신춘문예 [현상 공모]에 응모했다. ()
- 주58. 사진 찍기가 취미였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[현상소]를 차렸다. ()
- 주59. 그 축구 선수는 국위 [선양]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높였다. ()
- 주60. 한글날을 제정하여 민족 문화의 [선양]에 이바지하였다. ()

※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. (단,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)

주61. 20여 년간 螺蠶 工藝에 매달려 온 그의 內功은 普通이 아니었다.

(→)

주62. 虛僞 사실을 捏造하여 남을 廣告하는 행위는 儼然한 犯罪이다.

(→)

주63. 山寺가 주는 靜蜜과 고요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平安을 맛보았다.

(→)

주64. 그녀는 고양이 눈매와 名品 碎骨 라인을 드러낸 채 바비 人形으로 變身했다.

(→)

주65. 무일푼인 우리에게 粉食집 陳列櫥에 놓인 蠻頭는 그림의 떡이었다.

(→)

※ 풀이에 맞게 [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주66. [숙살]: 째짤한 가을 기운이 풀이나 나무를 말려 죽임. ()

주67. [치수]: 아주 가벼운 무게를 이르는 말. ()

주68. [부로]: 사로잡은 적. ()

주69. [조정]: 정해진 거리에서 보트를 저어 스피드를 겨루는 경기. ()

주70. [봉수대]: 봉화를 올리던 독. ()

주71. [청초]: 화려하지 않으면서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. ()

주72. [필로]: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임금의 수레가 지나가던 길. ()

주73. [향이]: 냄새가 좋은 미끼. ()

주74. [촬영]: 사람, 사물,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. ()

주75. [요실금]: 오줌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나오는 증상. ()

※ 문장 속 [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주76. 그녀는 [청상과수]로 늙어 온 자기의 설움을 생각하고 눈물을 글썽거렸다.

()

주77.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정결하게 올리면 신명이 기꺼이 [흠향]하실 것이다.

()

주78. 어디선가 처량한 [단소]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온다.

()

주79. 화려한 문체는 [현란]한 어휘에서 뒷받침 받고 있다.

()

주80. 백성들은 고향을 [착취]하는 악독한 군수에 대항하여 일제히 봉기하였다.

()

주81. 화장 안 한 얼굴은 창백하게 바랬고 무슨 병이 있는지 몸은 몹시 [수척]해 보였다.

()

주82. 왕은 의천에게 대각 국사라는 [시호]를 내려 그의 덕을 기렸다. ()

주83. 방짜 [유기] 박물관에 다녀왔다. ()

주84. 워낙 목소리가 청청한 데다가 인물까지 얌전해서 그가 책을 들고 앉은 모양은 누가 보든지 [고혹]할 만하였다. ()

주85. [울적]한 마음을 달래려고 산보를 나갔다. ()

주86.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[도태]된다. ()

주87. 수십 년 서로 [격조]한 동안에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? ()

주88. 창고 안에는 해묵은 [잉여]의 물자들이 쌓여 있었다. ()

주89. 가정용 전기세탁기도 [교반기]의 일종이다. ()

주90. [석굴암]의 조각은 여체의 곡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능적이지 않다. ()

※ []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○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91. [○革之屍]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르는 말. ()
- 주92. [膏火自○] 재능 때문에 도리어 화를 입음. ()
- 주93. [自作之○]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재앙. ()
- 주94. [○突豨勇]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날땀. ()
- 주95. [明○皓齒] 미인의 모습을 이르는 말. ()
- 주96. [○粟之文] 일반 사람들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글을 이르는 말. ()
- 주97. [蚌○之爭] 대립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결국은 구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득을 주는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)
- 주98. [切齒○腕] 이를 갈고 팔을 걷어붙이며 몹시 분해함. ()
- 주99. [賣官○爵]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킴. ()
- 주100.[○烙之刑]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는 형벌. ()

주관식 II (주101~주150번)

■ [주관식III]의 답은 별도의 [주관식 II 답안지]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[]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‘O’, 적절하지 않으면 ‘X’로 표기하시오.

- 주101. 그 임금이 사납고 포악한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은 [桃夭時節]의 괴로움에서 허덕이고 있었다. ()
- 주102. 무심한 듯 [彫蟲篆刻]한 조각품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다. ()
- 주103. 멸망한 조국을 한탄하며 [望雲之情]의 회한에 잠겼다. ()

주104. 영화에서 귀신들이 [蓬頭亂髮]하고 나와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. ()

※ []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105. 그곳은 [겹치고 겹친 산 속]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험하다. ()
- 주106. 가벼운 농담이라도 그 말을 들은 당사자에게는 [음탕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이야기]로 받아들여져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. ()
- 주107. [으르렁대는 호랑이가 개필에 빠지듯이] 그는 큰소리만 쳤지 결국 일을 이루지 못했다. ()
- 주108. 그것들은 [쥐의 간과 벌레의 팔]처럼 하찮고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. ()

※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.

- 주109. 堤潰蟻穴 ()
- 주110. 盤根錯節 ()
- 주111. 攀龍附鳳 ()
- 주112. 犬齧枯骨 ()

※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.

- 주113. 他人之宴 曰梨曰柿 ()
- 주114. 瞬目不函 或喪厥鼻 ()
- 주115. 來語不美 去語何美 ()
- 주116. 對笑顏 唾亦難 ()

※ 문장의 ○ 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自己之與矣后雖哉焉必於而以

- 주117. 君子○過也 如日月之食○ 《論語》
(,)
- 주118. 宜兄宜弟而○可○教國人 《大學》
(,)
- 주119.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○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○ 《論語》
(,)
- 주120. 金玉滿堂 莫之能守 富貴○驕 ○遺其咎 《老子》
(,)

※ 문장의 ○ 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陷寡佞爲多肖姦繁築賢幼鮮平

- 주121. 善始者實○ 克終者蓋○ 《貞觀政要》
(,)
- 주122. 人有三不祥 ○而不肯事長 賤而不肯事貴 不○而不肯事賢 是人之三不祥也 《小學》
(,)
- 주123. 譬如○山 未成一簣 止 吾止也 譬如○地 雖覆一簣 進 吾往也 《論語》
(,)
- 주124. ○婦 令夫貴 ○婦 令夫賤 《明心寶鑑》
(,)

※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[]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.

- 주125. [知矣以而爲溫新師故可] 《論語》
국역: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.
()
- 주126. 詩三百 [蔽之以一曰言邪思無] 《論語》
국역: 시경 3백 편의 뜻을 한마디 말로 대표할 수 있으니 '생각에 간사함이 없다.'는 것이다.
()
- 주127. [出祭如如承使賓民門大大見] 《小學》
국역: 대문을 나가서는 귀한 손님을 본 듯이 하며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해야 한다.
()
- 주128.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[行學則以餘有文力] 《論語》
국역: 제자는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, (행실을) 삼가고 (말을) 신중하게 하며,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이를 진히 해야 하니, 이것을 행하고 남는 힘이 있거든 글을 배워야 한다.
()

※ [] 부분을 국역하시오.

- 주129. [虎不知獸畏己而走也] 以爲畏狐也 《戰國策》
()
- 주130. [節義廉退 顛沛匪虧] <千字文>
()
- 주131. 嘗以抄啓文臣 入內閣 [大被器賞] 由是 忌疾者衆 《梅泉野錄》
(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閨情 / 李玉峯
有約來(㉠)晚 ㉠정매옥사시
忽聞枝上鵲 ㉡虛畫鏡中眉

(나) 農家歎 / 鄭來僑
㉢○○之徵(㉣)慘毒 ㉤同鄰一族橫罹厄
㉥鞭撻朝暮嚴科督 前村走匿後村哭
鷄狗賣盡償不足 悍吏索錢錢(㉦)得
父子兄弟不相保 皮骨半死就凍獄

- 주132. ㉠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(正字)를 쓰시오. ()
- 주133. ㉡을 漢字(正字)를 쓰시오. ()
- 주134. ㉢을 국역하시오. ()
- 주135. (가)의 주제를 쓰시오. ()
- 주136. ㉤은 죽은 이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행위를 비판하는 부분이다. ○○에 적절한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)
- 주137. ㉥을 국역하시오. ()
- 주138. ㉦을 국역하시오. ()
- 주139. (나)의 주제와 의미가 통하는 4음절 成語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凡植木之性이 其本欲舒하고 其培欲平하고 其土欲故하고 其築欲密이라 既然已어든 勿動勿慮하고 去不復顧라 其蒔也若子하고 其置也若棄면 則㉠其天者全而其性得矣라 故로 吾不害其長而已요 非有能碩而茂之也라 不抑耗其實而已이오 非有能蚤而蕃之也라 他植者則不然하니 根拳而土易하고 其培之也 若不過焉이면 則不及焉이오 苟有能反是者인댄 則又愛之太恩하고 憂之太勤하여 旦視而暮撫하며 ㉡已去而復顧라 甚者는 爪其膚하여 以驗其生枯하며 搖其本하여 以觀其疏密하니 而木之性이 日以離矣라 雖曰 愛之나 其實害之요 雖曰 憂之나 其實讐之라 故로 不我若也라 ㉢吾又何能爲矣哉리오 問者曰 以子之道로 移之官理可乎아 駝曰 我知種樹而已요 理非吾業也라 然吾居鄉하여 ㉣見長人者好煩其令하여 若甚憐焉이로되 而卒以禍라 且暮에 吏來而呼曰 官命促爾耕하고 勸爾植하며 督爾穫하며 蚤繰而緒하며 蚤織而縷하며 ㉤字而幼孩하며 遂而鷄豚이라하여 鳴鼓而聚之하고 擊木而召之라 吾小人은 具饗飧以勞吏者라도 且不得暇어늘 又何以蕃吾生而安吾性邪아 故로 病且怠하니 若是即與吾業者로 其亦有類乎인저 問者喜曰 不亦善夫아 吾問養樹라가 得養人術이로다 傳其事하여 以爲官戒也하노라

《古文眞寶》

- 주140. ㉠을 국역하시오.
()
- 주141. ㉡을 국역하시오.
()
- 주142. ㉢의 문장형식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- 주143. ㉣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석되는 것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- 주144. ㉤을 국역하시오.
()
- 주145. 윗글의 작가의 성명을 漢字[正字]로 쓰시오.
(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歸去來兮여 請息交以絕游라
世與我而相違하니 復駕言兮焉求리오
悅親戚之情話하고 樂琴書以㉠소우로다
農人告余以春及하니 將有事于西疇로다
或命巾車하고 或棹孤舟하여
㉡既窈窕以尋壑하고 亦崎嶇而經丘하니
木欣欣以向榮하고 泉涓涓而始流라
羨萬物之得時하고 感吾生之行休로다
已矣乎라 寓形宇內復幾時오
曷不委心任去留하고 ㉢胡爲乎遑遑欲何之
오
富貴는 非吾願이오 帝鄉은 不可期라
懷良辰以孤往하고 或㉣植杖而耘耔라
登東臯以舒嘯하고 臨清流而賦詩라
㉤聊乘化以歸盡하니 樂夫天命復奚疑아

《古文眞寶》

- 주146. ㉠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- 주147. ㉡을 국역하시오.
()
- 주148. ㉢을 국역하시오.
()
- 주149. 문맥상 ㉣의 ‘훈과 음’을 쓰시오.
()
- 주150. ㉤을 국역하시오.
()

- 수고하셨습니다 -

합격자 발표: 2023. 12. 14. (목)
결 과 조 회: 홈페이지 (www.hanja114.org) 접속
(성명, 생년월일, 수험번호 필수 기재)

제114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1)

■ 객관식 ■
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
| 1 | ④ | 6 | ③ | 11 | ④ | 16 | ① | 21 | ③ | 26 | ④ | 31 | ② | 36 | ③ | 41 | ② | 46 | ④ |
| 2 | ② | 7 | ① | 12 | ④ | 17 | ② | 22 | ① | 27 | ① | 32 | ④ | 37 | ① | 42 | ④ | 47 | ③ |
| 3 | ③ | 8 | ④ | 13 | ② | 18 | ④ | 23 | ③ | 28 | ④ | 33 | ① | 38 | ③ | 43 | ③ | 48 | ④ |
| 4 | ① | 9 | ③ | 14 | ① | 19 | ① | 24 | ② | 29 | ③ | 34 | ③ | 39 | ② | 44 | ① | 49 | ① |
| 5 | ④ | 10 | ② | 15 | ④ | 20 | ③ | 25 | ① | 30 | ③ | 35 | ④ | 40 | ③ | 45 | ③ | 50 | ④ |

■ 주관식 I ■

| | | | 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주1 | 방죽 언 | 주21 | 끝 타 | 주41 | 호산 | 주61 | 氈→鈿 | 주81 | 瘦瘠 |
| 주2 | 물궤 정 | 주22 | 밝을 황 | 주42 | 전탁 | 주62 | 廡→誣 | 주82 | 諡號 |
| 주3 | 모종낼 시 | 주23 | 舌 | 주43 | 시휘 | 주63 | 密→謐 | 주83 | 鍤器 |
| 주4 | 불기 둔 | 주24 | 車 | 주44 | 취와 | 주64 | 碎→鎖 | 주84 | 蠱惑 |
| 주5 | 들 치 | 주25 | 肉 | 주45 | 저마 | 주65 | 蠻→饅 | 주85 | 鬱寂 |
| 주6 | 천연두 포 | 주26 | 小 | 주46 | 틈사 | 주66 | 肅殺 | 주86 | 淘汰 |
| 주7 | 볶을 초 | 주27 | 悞 | 주47 | 갱가 | 주67 | 錙銖 | 주87 | 隔阻 |
| 주8 | 빨리날 편 | 주28 | 沕 | 주48 | 천와 | 주68 | 俘虜 | 주88 | 剩餘 |
| 주9 | 뜯 읊 | 주29 | 笨 | 주49 | 형추 | 주69 | 漕艇 | 주89 | 攪拌機/器 |
| 주10 | 대지를 축 | 주30 | 檉 | 주50 | 긴찰 | 주70 | 烽燧臺 | 주90 | 石窟庵 |
| 주11 | 바렐 퇴 | 주31 | 燥 | 주51 | 포혜 | 주71 | 淸楚 | 주91 | 裹 |
| 주12 | 반걸음 규 | 주32 | 蕊 | 주52 | 예속 | 주72 | 蹕路 | 주92 | 煎 |
| 주13 | 어혈질 어 | 주33 | 葳 | 주53 | 채보 | 주73 | 香餌 | 주93 | 擘 |
| 주14 | 미끄러질 달 | 주34 | 擅 | 주54 | 기렵 | 주74 | 撮影 | 주94 | 猪/豬 |
| 주15 | 과녁 후 | 주35 | 櫝 | 주55 | 보궤 | 주75 | 尿失禁 | 주95 | 眸 |
| 주16 | 물돌아나갈 영 | 주36 | 怙 | 주56 | 뇌사 | 주76 | 靑孀寡守 | 주96 | 菽 |
| 주17 | 성가퀴 칩 | 주37 | 蕭 | 주57 | 懸賞公募 | 주77 | 歆饗 | 주97 | 鷓 |
| 주18 | 화할 인 | 주38 | 貂 | 주58 | 現像所 | 주78 | 短簫 | 주98 | 扼 |
| 주19 | 다듬잇돌 칩 | 주39 | 鉢 | 주59 | 宣揚 | 주79 | 絢爛 | 주99 | 鬻 |
| 주20 | 얼굴붉힐 난 | 주40 | 淹 | 주60 | 煽揚 | 주80 | 搾取 | 주100 | 炮 |

제114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2)

▣ 주관식 II ▣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101 | X | 주118 | 后 , 以 | 주135 |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기다림 |
| 주102 | X | 주119 | 於 , 已 | 주136 | 白骨 |
| 주103 | X | 주120 | 而 , 自 | 주137 | 한 마을 사는 한 가족이 모두 횡액을 당하였네 |
| 주104 | O | 주121 | 繁 , 寡 | 주138 | 아침 저녁 채찍으로 치며 엄하게 재촉하니 |
| 주105 | 疊疊山中 | 주122 | 幼 , 肖 | 주139 | 苛斂誅求 |
| 주106 | 淫談悖說 | 주123 | 爲 , 平 | 주140 | 그 천성이 온전해지고 그 본성이언어 집니다. |
| 주107 | 咆虎陷浦 | 주124 | 賢 , 佞 | 주141 | 이미 떠난 후에 다시 와서 돌본다. |
| 주108 | 鼠肝蟲臂 | 주125 |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| 주142 | 反語文/反語形 |
| 주109 | 소홀히 한 작은 일이 큰 화를 불러옴. | 주126 |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| 주143 | 見 |
| 주110 |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. | 주127 |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| 주144 | 너의 자식을 사랑하고 (잘 기르고) 너의 개와 닭을 잘 키워라. |
| 주111 | 훌륭한 임금을 좇아서 공명을 세움. | 주128 | 行有餘力 則以學文 | 주145 | 柳宗元 |
| 주112 | 음식이 아무 맛도 없음. | 주129 |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여 달아나는 줄을 모르고 | 주146 | 消憂 |
| 주113 | 남의 잔치[장/제사]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. | 주130 | 절개와 의리와 청렴과 물러남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지러뜨려서는 안된다. | 주147 |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찾아가고 (이미 깊숙이 골짜기를 찾고) |
| 주114 |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. | 주131 | 크게 훌륭한 인물로 인정을 받으니 | 주148 | 어찌하여 바빠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|
| 주115 |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 | 주132 | 何 | 주149 | 돌 치 |
| 주116 | 웃는 낮에 침 못 뱉는다. / 웃는 낮에 침 뱉으랴. | 주133 | 庭梅欲謝時 | 주150 | 애오라지 자연의 변화에 따라 생을 마치고 |
| 주117 | 之 , 焉 | 주134 | 부질없이 거울을 보며 눈썹을 그리네 | | |